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랑가라컬리지	기간	2019.01.13.~2019.02.02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랑가라 컬리지는 캠퍼스가 매우 넓은 편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뒷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고 문을 잡아준 사람을 위해서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학교 바로 앞에 역이 있어 버스로 통학하기에 매우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업	수업은 한 주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오전, 오후 수업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액티비티는 오후 수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랑가라 컬리지에 파견된 순천향대학교 학생 15명이 분반 없이 함께 수업하였고,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하는 수업은 없었습니다. 한 분의 선생님께서 모든 수업을 하셨는데, 매우 친절하시고 열정적이셨습니다. 한국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쉬운 단어를 가지고 천천히 설명해주셨으며, 모르는 단어나 내용이 있으면 부담 없이 여쭙볼 수 있었습니다. 주로 그룹 활동을 중심으로 한 말하기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이때 'English Only(EO)'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같은 한국인들끼리 영어로 말하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지만, 영어회화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제는 여러 번 있지만 짧은 시간 내에 부담 없이 할 수 있었고, 금요일마다(총 2번) 저널 쓰기 과제가 있었습니다. 저널을 써서 제출하면 틀린 부분을 체크해 주시는데 본인이 고쳐서 다시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Activity	파견 전 안내 받은 액티비티는 컬링과 캐필라노 서스펜션 브릿지인데, 이 외에도 박물관, 아쿠아리움, 랑가라 학생들과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컬링은 막상 해보니 어려웠지만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스포츠이기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액티비티는 캐필라노 서스펜션 브릿지입니다. 캐나다의 자연환경을 잘 느낄 수 있었던 곳입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겨울의 밴쿠버는 레인쿠버라고 들었는데, 역시나 대체적으로 흐린 날씨였습니다. 비가 올 때 많이 오는 편은 아니지만 언제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접는 우산을 항상 들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	겨울이라 그런지 굉장히 빨리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달리 밤에는 굉장히 조용하고 바깥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 캐나다 단기어학연수를 가기 전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홈스테이였는데 어떤 가족을 만나게 되느냐에 따라 숙소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홈스테이 사전 조사를 최대한 솔직하고 성실하게 했다고 생각했으나 막상 지내게 된 홈스테이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신경 써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홈스테이에서는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9시 정도면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샤워를 하려면 그 전에 마쳐야 합니다. 파견 전 대부분의 수기에서 샤워시간이 10분이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지낸 홈스테이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만 화장실 바닥은 마른 채로 유지해야 합니다. 욕조나 커튼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처음 홈스테이 가족들을 만났을 때 조심해야 하거나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먼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노는 것을 좋아해서 일찍 귀가한 날이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홈스테이 부모님도 이에 대해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환경이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나 불편한 점이 있다면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 외부식당 (✓) 기타() 아침은 주로 식빵이나 베이글, 시리얼이었고, 점심은 전날 저녁에 남은 음식이나 샌드위치로 도시락을 싸서 다닙니다. 저는 첫 주부터 홈맘과 음식에 대한 조율(아침 식사, 점심 도시락 등)을 하려고 노력했으나 잘 맞지 않아 3주 내내 힘들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3시에 마치고 보통 6시에 저녁을 먹기 때문에 저녁은 주로 사람들과 밖에서 사 먹었습니다.
교통	밴쿠버 도착 당일 학교에서 교통카드를 지급해 주는데, 한 달간 zone 1에서 사용할 수 있는 먼슬리 패스여서 어디든 교통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다른 zone(zone 2, zone 3)에 가려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으니 선생님이나 홈스테이 담당자 분들께 여쭙보면 됩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여행자보험, eTA	1,595,900+ 23,600+6045 =1,625,545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약 278,521.31	
쇼핑	약 776,752.59	
기타	약 65,112.77	
합계	약 2,745,931.67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 목베개, 안대 : 장시간 비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서 최대한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목베개와 안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동계일 경우) 수면잠옷 세트 :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방이 춥다고 했습니다. 잘 때 평소보다 따뜻하게 입고 자고, 호스트 패밀리에게 두꺼운 이불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동전지갑 : 현금을 사용하다 보면 잔돈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 캐리어 2개(필수) : 돌아올 때는 기념품이나 선물 등으로 짐이 매우 늘어나기 때문에 캐리어를 2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 실내화 : 홈스테이 집 바닥이 차갑기 때문에 항상 실내화를 신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집게 파일 : 종이 한두 장을 가지고 활동할 때가 많기 때문에 집게 파일이 있으면 필기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 컵라면, 볶음 고추장 : 홈스테이 점심이 부실할 수도 있고 한국 음식이 그리워집니다. 한인 마트나 일반 마트에서 몇 가지 종류의 컵라면을 팔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보다 훨씬 비쌉니다.
- 빨래 : 캐나다에서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주로 주말에 빨래를 한꺼번에 모아서 합니다. 그런데 저는 주말에 집을 비우기도 했고 가족들과 시간이 맞지 않아 빨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양말이나 속옷을 직접 빨았습니다. 빨래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수건이나 양말 속옷 등을 넉넉하게 챙겨가고 직접 빨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장시간 비행기 처음이라 밴쿠버에 도착하자마자 매우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3주라는 시간이 지나가긴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다행히도 첫날부터 3주 내내 잠도 잘 잤습니다. 홈스테이나 음식 등 힘든 점도 있었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나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항공료와 출국 전 각종 준비물을 포함하여 캐나다에서도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즐거웠습니다. 짧지만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Gast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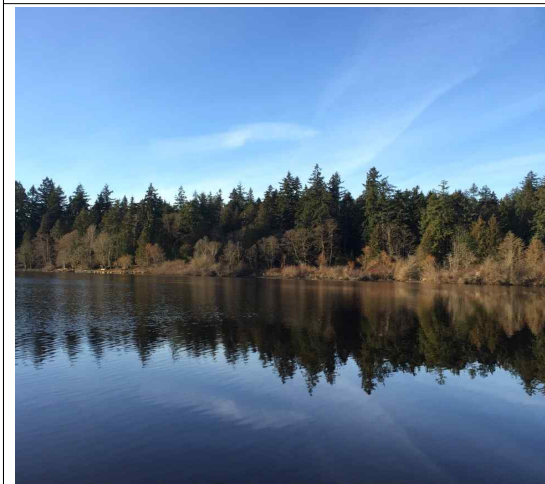
English B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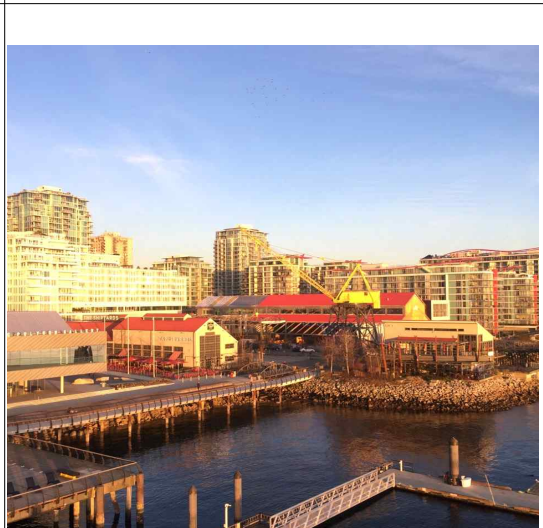
Curling



British Columbia Parliament Buildings



Stanley Park



North Vancouver